

임실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5% → 8%로 내달 1일부터 공포·시행 예정

임실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해 지역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금액 할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임실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군의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명절 등 특정기간 할인율을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 예고한 후 의회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달 1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발행한 임실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재까지 50여원을 발행·운영중이며, 1만원권과 5천원권, 2천원권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실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실군내 가맹점수는 319개로 임실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임실사랑상품권 이용을 대폭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30억원으로 늘리고 판매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책지원금

의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가맹점 늘리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임실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증가, 지역경제는 물론 전통시장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향을 지키기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이용을 위해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회 남원 국제에코캠핑대회 성료

외국인 유학생 70명, 블로거 30명 등 약 100여명 참여 마을 트래킹·정령치 밤하늘 탐사·한복 패션쇼 등 체험

남원시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운봉읍에 소재한 남원백두대간 캠핑장에서 제1회 남원국제에코캠핑대회를 개최하며, 남원백두대간 생태환경이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

회를 개최하며, 남원백두대간 생태환경이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

의회 주관으로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한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70명과 캠핑관련 사진작가 및 블로거 30명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핑 대회에서 허브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비롯, 가까운 마을 트래킹, 정령치 밤하늘 탐사, 한복 패션쇼, 전통혼례식 공연 관람 등 전통문화와 생태탐방을 조화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행사기간 중 인근 회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백두대간 생태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남원시 관광과 양선모 계장은 "이번 생태캠핑대회는 운봉읍을 비롯한 동부권 4개 읍면 지역의 순환형 생태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단초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태 콘텐츠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관광 마케팅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남원백두대간 캠핑장에서 제1회 남원국제에코캠핑대회를 개최했다.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10월 21일부터 10월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창군 공무원행차 친절서비스 교육

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59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은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을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경 민인홀에서 서장 등 전 직원 및 협력단체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남원서,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1일 오전 11시경 민인홀에서 서장 등 전 직원 및 협력단체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경찰관과 남원경찰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 국무총리 추사 낭독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사과 배영호 경위가 대통령 표창, 경무과 김정이 경위가 행정안

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50명의 경찰관이 표창(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을 수상했다.

함현배 서장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은 전 직원의 노고 및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남원경찰을 지켜보아 주어 더욱 의미가 깊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남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에 복합형 가족 실내놀이터 생긴다

2020년 생활SOC 사업 선정

년까지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와 기온 상승 등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심이 증가되는 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실내놀이터 조성은 지난 10월 정부가 추진한 생활 SOC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3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총 사업비 41억원이 투입되는 실내놀이터는 현재 투자선도지구내 조성될 계획으로, 연면적 1,500㎡ 크기로 놀이공간, 휴게공간, 체육공간,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놀이공간에는 실내클라이밍, 정글짐, 트램폴린, VR체육실 등을 이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휴게공간은 보드게임, 영화감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도 갖춰진다.

이외에도 성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까지 갖춰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어린이 및 학부보 650여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부모 모임과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한 놀이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 다양한 놀이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에 건립되는 실내놀이터는 주변에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식물원, 푸드사이언스관, 미생물뮤지엄, 발효테라피센터 등과 연계되어 한층 강화된 순창 놀이문화의 트렌드를 바꿔 나갈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에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 구성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이명로 의원을, 간사에 전남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진행에 대한 집행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로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의 행정진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여 발전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남원시 2곳 선정 10억 확보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한 2020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금이면 금공영농조합법인과 보절면 한울림농조합법인 2곳이 최종 선정되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남원시는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대응한 결과 2개소 공모에 2개소 모두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번 선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유통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구입비용 등 총 1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남원시 이강조 원에산업과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될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